

SK그룹, 화학사업 임원 “환골탈태”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 봉사활동 ... SK 신현철 사장은 일일 주유원

SK케미칼은 김창근 대표이사 부회장이 고덕동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내 심신수련 동호회원들과 함께 중풍마비 장애인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5월31일 발표했다.

김창근 부회장을 비롯한 SK케미칼 임직원들은 장애인들의 팔과 다리의 굳은 근육을 마사지로 풀어주고 요가동작을 응용한 심신수련법을 알려줬다.

SK케미칼 자원봉사단과 심신수련원 회원들은 매달 2회씩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펴오고 있다.

한편, SK 신현철 사장과 SK네트웍스 정만원 사장이 판매현장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일 주유소 현장체험에 나섰다.

신현철 사장은 5월31일 반포주유소에서, 정만원 사장은 여의도주유소에서 일일 근무를 했다.

6월27일까지 진행되는 일일 주유소 근무는 임직원들의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사에서 총 1600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양사는 행사기간에 접수된 고객 불만사항 및 임직원들이 제안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6/02>